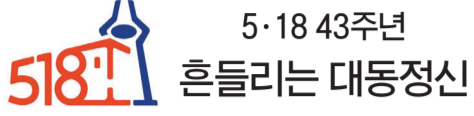


# 화합 아닌 이득 노렸나...갈등 도화선 된 '공동선언식'



## <2> 오월단체 갈등 배경은

최근 잇따르는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와 (사)특전사동지회가 지난 2월 19일 진행한 '공동선언식'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43년간 5·18 가해자인 특전사 단체가 별다른 사죄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5·18공법단체가 대담 특전사동지회 손을 잡고 '용서와 화해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식이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치러진 배경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동선언식은 지역의 반발 여론이 들끓는데다 공법단체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데도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가해자·피해자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

'모종의 거래' 의혹 속 "공법단체 일부 간부 정계 진출 목적" 지적도 특전사동지회 문건에 "우리도 피해자...합당한 치료·보상 이뤄져야" 시민단체 "두 공법단체 반성·특전사측 진상규명 도움되는 진술 먼저"

에서 선불리 화해를 하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더구나 두 공법단체와 특전사동지회가 공개적으로 교류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공동선언식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져 그 배경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1월 특전사동지회 광주시지부 관계자 3명이 5월 단체에게 갑골 20박스를 전달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1월 16일 두 공법단체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5·18 당시 순진 특전사, 경찰 등 묘역을 참배했고, 2월 19일 곧장 공동선언식을 치렀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양 측이 몰입 접촉을 통해 서로 이득을 챙기자는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5·18공법단체 내부에서는 공법단체 간부 A씨가 내년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공동선언식을 서둘렀

다는 의혹이 나온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친 뒤 4월 곧장 국회의원 총선에 뛰어들기 위한 밑작업으로 치적을 쌓기 위해 '극적인 화해 이벤트'를 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의혹에 "범죄 경력 때문에 공천 출마 자격이 안 된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10년까지로, A씨는 올해 10월부터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2002~2010년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구청장을 지내며 정계와 인연을 맺어 왔

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당시 국민의힘이 호남과 화합하겠다며 오월 3단체장 중 한 명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설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43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5·18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 5·18을 이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피선거권이 돌아오더라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공천을 노릴 거면 애초 시민단체와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특전사동지회는 계엄군을 5·18민주화운동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전환하고 보훈처 예산을 통해 치료지원 및 보상을 받기 위해 공동선언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선언식에 앞서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 내부에서는 '대한민국 특전예비군 특기단'이 작성한 '43년의 숙제(恨) 누가 풀 수 있을까' 문건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해당 문건에는 "지난 1월 우리 특전인들의 한(恨)의 상대인 5·18 관련 3공법단체에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왔다"는 말과 함께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한 특전사 요원들 역시 피해자이고 그에 합당한 치료와 국가로부터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한(恨)과 고통속에 43년을 살아온 특전인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한 공적을 바로잡아 자랑스런 특전 용사들의 추모·기념관 건립을 통해 명예를 역사에 남길 수 있을 것"이란 내용도 담겼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의혹을 씻어내고 올바르게 화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식을 강행한 두 공법단체의 반성과 특전사 측의 진정한 사죄, 진실한 태도가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순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두 공법단체는 행사를 성급하게 치른 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반성하며 광주시민들을 '비당사자'로 매도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5·18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특전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며, 특전사동지회 또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내놓으며 진솔한 태도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5·18단체들, '전두환 추징 3법' 통과 촉구

5·18 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두환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3개 공법단체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과 함께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

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가리킨다.

재단은 "최근 전두환씨 친손자의 폭로로 그간 의

혹으로만 남았던 은닉재산과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두환씨는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전체 추징액 중 41%인 922억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 3법은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돼 왔다"며 "법사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씨 일가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하라"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5·18 전야제 17일 1시부터 다채로운 행사

오월시민난장·풍물행진·연극 등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전야제가 일본 합정단 초청공연부터 총체극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며진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원장 최철)는 10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야제와 기념행사 일정을 소개했다.

행사에 따르면 전야제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는 '오월시민난장'으로 시작한다. 오월어머니집과 해맑은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주먹밥 나눔을 하는 등 총 23개 단체가 부스를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본 '일어사라 합창단'과 '야마가미 시계노리'와 그 친구들의 특별 초청 합창 공연 등 6개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전야제 전통 행사인 '오월풍물굿'도 펼쳐진다. 오후 2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여는굿을 하고, 오후 5시 30분에는 수창초, 조산대, 광주공원에서 각각

출발하는 풍물패가 금남공원까지 풍물 행진을 한다. '민주평화대행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수창초에서 금남로까지 이어진다. 행진에는 5·18유가족 및 당사자, 기관 단체 대표 및 회원, 시민 등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는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전야제 본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두 배 가량 키운 대형 특설무대(가로 22m×세로 14m)를 설치할 계획이다.

본행사에서는 연극 '끝까지 우리들은 정의파다'를 공연한다. 극은 음악과 영상, 안무 등이 어우러진 '총체극' 형식으로 기획됐다. 연극 줄거리는 전남대 출신으로 도청에서 산화한 이정연 열사가 사후 비둘기가 돼 2020년대 미래 광주를 찾아온다는 내용이다.

박정은 행사위 전야제 총감독은 "광주시민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광주의 상징과 역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전야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미래 세대인 학생과 청년들이 오월 정신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전야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차량 훔쳐 달아난 '음주 경찰' 기소의견 송치하고 직위해제

광주 현직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광산경찰은 절도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A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북부경찰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경위는 지난달 21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전기차를 훔쳐 타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음주상태로 10km가량 운전한 뒤 인근에 시동을 켜둔 채 내려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안 차주는 앱으로 차량 위치를 찾아낸 뒤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 경찰은 차량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A경위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검찰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오월영령 묘비 닦고 조화 교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10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들의 묘비를 닦고 조화를 교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문의. 010-3605-5000